



일제 피해자 가족을 만나 일본정부를 상대로한
소송준비작업을 설명하고 있는 全原奭균。

日帝에 맺힌
半세기恨
풀리려나

지용 학병 정신대 피해보상소송 운동

日지식인 교포「百人委」서 추진
피해자 위임받아 8월경 提訴

[illegible][illegible]

일본 정부에 배상·사과 요구

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

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제 때 강제징용·징병으로 끌려가 희생된 한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인 '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'(회장 배혜원)는 26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 1994호 동 한국일보사 12층 송현열법 강당에서 희생자 유가족 및 참전자 등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'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 보상을 위한 제판 설명회'를 갖고 일본의 공식사죄와 적절한 배상을 요구했다.

유가족들은 "일본은 식민지 통치기간중 6백만명의 한국인을 강

제로 끌고 가 이중 2백여만명이 희생됐음에도 지난 66년 한일회담에서 2만1천9백19명의 사망자 명단만을 제시한 채 나머지 희생자들을 행방불명으로 처리하는 등 강제징용·징병 관련자료를 소각·인멸시켰다"고 지적하고 △희생자 명단공개 △유해발굴 및 송환 △희생자에 대한 응분의 배상 △유족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 등을 요구했다.

참석자들은 재판 설명회가 끝난 오후 4시에 일본대사관 앞으로 몰려가 항의시위를 벌이며 했으나 경찰이 막자 파고다공원까지 거리행진을 벌인 뒤 해산했다.